



행복한 왕자와 제비

익명의 적선가가 늘고 있는가 하면, 불우이웃들과 고통도 함께하는 조용하고 착한 이웃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알려질 것을 바라지 않는 자선이 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한창이다. 대대적으로 성금(誠金)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들마저 모금함을 들고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 구세군(救世軍)의 자선남비가 아니더라도 금방 연말이 훈훈함을 느끼게 한다. 몇푼의 돈일망정 고사리손의 모금함에 성금을 넣어 주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자선(慈善)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행복한 왕자」가 떠오른다.

어느 도시에 「행복한 왕자」 동상(銅像)이 서 있었다. 온몸은 순금(純金)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두개의 눈에 사파이어가 그리고 칼자루엔 루비가 박혀 있었다.

어느날 강남(江南)이집트로 미처 떠나지 못한 마음씨 착한 제비 한마리가 날아오자 「행복한 왕자」는 제비를 시켜 루비와 사파이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온 몸을 뒤덮은 순금마저도 조각내 나눠 주고 만다. 결국 보기 흉하게 된 「행복한 왕자」 동상은 쓰러져 죽은 제비와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된다.

그러나 이 죽은 제비와 헐벗은 동상은 그 도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천사(天使)에게 발견돼 하느님께 바쳐진다. 하느님은 제비에게 하느님의 낙원에서 언제까지나 노래부르게 하고 「행복한 왕자」는 황금도시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게 한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작품에서 이 세상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이런 불우 이웃들을 아낌없이 도와주므로 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애기다.

「역경(易經)」에도 이런 말이 있다.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즉 선을 베푸는 집안엔 반드시 경사가 따르고 선을 베풀지 않는 집안엔 재앙(災殃)이 따른다는 말이다. 선을 베풀라는, 좋은 일 하라는 옛부터 전해지는 하나의 교훈이다.

우리 사회엔 불우이웃들도 많지만 이들을 돕는 착한 이웃들도 많다. 그래서 가끔 우리 사회가 따뜻함을 느끼곤 한다. 「성경」에 『너는 구제(救濟)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라는 귀절이 있다. 무엇을 시사(示唆)하는지 알 만하다.

어제(19일) 본보(本報)에 의하면 익명의 적선가(積善家)가 늘고 있는가 하면, 불우이웃들과 고통도 함께 하는 조용하고 착한 이웃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널리 알려질 것을 바라고 하는 자선은 자선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알려질 것을 바라지 않는 자선」이 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자선」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내가맡은 작은일도 하고보면 나라발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